

위당 조선학의 본심감통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

이 대 승*

【국문초록】

이 글은 위당 정인보가 『조선고전해제』, 『양명학연론』 등에서 강조한 실심, 본심, 감통에 대한 논의를 중심 주제로 삼아,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탐색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에 다카하시 도루(高橋亨)로 대표되는 일제 관학은 조선 유학이 고착성, 종속성, 정체성 등을 지닌다고 보고 이를 조선 망국의 원인으로 치부하였다. 정인보 역시 조선 유학을 비판하지만 그 대상은 ‘자사념(自私念)’을 가지고 ‘허(虛)’와 ‘가(假)’로 학문을 행한 이들이다. 더불어 그는 조선 후기에 실심·본심을 바탕으로 한 실학의 계파가 있다고 변론했다. 실심·본심론에 바탕한 정인보의 조선 유학 비판과 변론은 식민지배 정당성을 위해 이루어진 일본 관학의 논리를 타파하는 성격을 지닌다.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 유학과 조선 민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이광수로 대표되는 당대 지식인에게 수용되어 내면화되었다. 이광수에게 조선은 천년 이상 정신이 정지된 무주체적 상태로서 조선인의 주체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신문명을 통해서였다. 정인보는 본심론을 통해 유학 자체 내에 개개인의 도덕 주체로서 양지, 즉 본심이 내재해 있음을 지적하고, 주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서구 문명과 일본의 식민담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본심의 환기’를 주문했다. 그의 본심론은 조선 유학과 조선인의 무주체성을 논한 이들에 대한 비판과 대응의 성격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을 지닌다.

근대 동아시아는 서구 문명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양명학은 서구 근대 문명의 야만성에 대해 도덕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의 경우 다카하시 도루의 스승이었던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에 의해 양명학은 일본 신도의 국가 정신과 결합하여 일본양명학이 탄생했다. 정인보 역시 양명학자이자 민족주의자로서 조선 민족을 중시하는 시각을 제시하지만, 그의 감통론은 본심의 애뜻함을 타자에게로 확장하는 것을 중시한다. 감통론에 바탕한 정인보의 사유는 타자와 전 인류에게로 열려있는 개방적 민족주의로서, 타자를 식민 대상으로 삼는 제국주의의 배타적 민족주의, 혹은 양명학을 이용하여 국가에 충효를 강요하는 충효군국주의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닌다.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학망국론, 조선인 무주체성론, 일본의 충효군국주의 등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정인보, 조선학, 양명학, 본심, 감통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실심·본심, 조선 유학 비판과 변론
3. 본심론을 통한 주체성 환기
4. 감통론에 바탕한 개방적 민족주의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정인보(鄭寅普, 1893~1950)는 안재홍과 함께 1930년대 ‘조선학운동’을 이끈 지식인으로 조선학, 양명학, 실학 방면에서 주로 논의되는 대표적

인 민족주의 사학자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학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고유성 혹은 조선 문화의 특질 등에 대해 고찰한 주요한 학술 형태다. ‘조선학’이란 명칭은 1920년대에 최남선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지만, 1934년 다산 정약용 서세 99주년을 기념하는 강연회에서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에 의해 제창되고, 1935년 다산 정약용 서세 100년 전후로 각종 강연회 및 학술연구가 전개되어 학술 운동으로서 ‘조선학운동’이 발흥되었다. 이후 조선학은 최남선, 정인보, 문일평, 김태준, 신남철 등에 의해 다방면에서 학술적 탐색이 이루어졌다.¹⁾

정인보는 ‘조선학운동’의 한복판에서 활동했다.²⁾ ‘조선학’ 용어는 『조선고전해제』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가 사용한 ‘조선학’은 ‘조선 근세의 새로운 주체적 학풍’을 가리킨다.³⁾ 주지하듯이 정인보는 조선학의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실학’이란 근대 학술 영역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당대의 학술장 속에서 조선학 연구를 실학과 접목시켜 이를 운동화하고 그 이념적 배경을 제시했다.⁴⁾ 그가 제기한 조선 후기의 실심실학의 학풍에는 조선양명학의 계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정인보의 조선학을 다른 학자들의 그것과 구별하

-
- 1) 조선학은 각 인물에 따라 그 내용과 범주가 차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김인식,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조선학’ 개념의 형성 과정－최남선·정인보·문일평·김태준·신남철의 예－」, 『숭실사학』 33, 2014, 115~155쪽 참조.
 - 2) 정인보가 참여했던 1930년대 ‘조선학운동’은 “일제의 학술 활동에 저항해서 일어난 조선 역사와 문화에 관한 학술운동”이다. 류시현, 「정인보의 조선유교와 한국 고대사 인식－「오천년간 조선의 얼」을 중심으로」, 『공존의 인간학』 2,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19, 104쪽.
 - 3) 이항직, 「위당 조선학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4(4), 2010, 22~32쪽 참조.
 - 4) 정덕기, 「위당 정인보의 실학인식과 학문주체론－「양명학연론」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학문과 조선학연구』, 선인, 2015, 72쪽.

기 위해 ‘위당 조선학’이라 일컫기도 한다.⁵⁾

위당 조선학의 구체적 내용은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에 발표된 정인보의 저술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정인보는 1929년 『성호사설』 교간 이후 1930년대에 『조선고서해제(朝鮮古典解題)』(1931), 『양명학연론』(1933), 『오천년간 조선의 얼』(1935~1936) 등 국학, 양명학과 관련된 중요한 저작을 저술하였다. 이러한 문헌에서 위당 조선학의 구체적 내용을 살필 수 있는데, 이 중 『양명학연론』에서는 조선학, 실학, 양명학 등에 대한 정인보의 시각이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 있다. 이 저술은 양명학과 조선 양명학파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지만, 조선학운동 제창 일 년 전 동아일보에 연재된 글로서 정인보의 조선학운동과 관련된 주요 저술로 평가된다.⁶⁾ 이 때문에 『양명학연론』은 정인보의 조선학과 양명학 양자를 살필 수 있는 문헌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탐구되어 왔다.⁷⁾

최근 연구에서는 『양명학연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실심(實心)’ ‘본심(本心)’ ‘감통(感通)’ 등을 정인보 학문의 핵심 개념으로 보고 있다. 가령, 김세정은 실심과 감통은 한국 양명학자들이 매우 중시한 개념으로 이 사유에 대한 뿌리는 16세기에 이미 등장하지만 18세기 하

5) ‘위당 조선학’은 이황직에 의해 제시된 용어다. 이황직은 정인보의 조선학이 전개된 과정을 준비기(1924~28), 모색기(1929~32), 완성기(1933~50)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내용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위당 조선학’의 특징과 의미를 제시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위당 조선학’ 용어는 이황직의 개념을 수용한 것이다. 이황직, 「위당 조선학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4(4), 2010.

6) 정덕기, 앞의 글(2015), 73쪽.

7) 위당 조선학 연구에 있어 『양명학연론』은 『오천년간 조선의 얼』과 함께 주된 분석의 대상이다. 전자는 특히 정인보 나아가 조선 및 근대 양명학을 연구할 때에도 주요 문헌으로 다뤄진다. 정인보의 조선학 선행연구는 최선웅, 「정인보, 동아일보에서 조선학을 설하다」, 『1930년대 조선학운동 심층연구』, 도서출판 선인, 2015, 68~69쪽, 양명학 선행연구는 김세정, 「한국근대양명학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전망」, 『유학연구』 42, 201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곡 정제두와 강화학파에 이르러 꽃을 피웠고, 20세기 정인보의 『양명학 연론』에서 결실을 보았음을 지적한다.⁸⁾ 김윤경은 정인보가 실심을 양명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이 실심이 혈족과 민중에게 애뜻함으로 발현되는 감통을 통해 ‘민족의 얼’이라는 확장된 주체를 형성했다고 본다. 다만 정인보가 주체적 실심을 자기 학문의 종지이자 양명학의 핵심이라 하면서도 스스로 ‘양명학자’로 여기는 것을 경계했음을 지적한다.⁹⁾ 한정길은 본심에 의한 민중과의 감통은 당시 도탄에 빠져 있던 조선의 민중을 구제하려는 정인보의 강력한 구세정신의 표현으로서 본심, 감통은 정인보 학문의 종지라고 말한다.¹⁰⁾

본 글 역시 실심, 본심, 감통에 대한 논의를 정인보 학문의 핵심으로 보고, 그의 실심·본심에 대한 논의를 ‘본심론’, 감통에 대한 논의를 ‘감통론’, 양자를 함께 거론할 때 ‘본심감통론’으로 지칭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인보 학문에서 본심감통론이 지닌 의미와 위상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서,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위당 조선학의 본심감통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사상가의 담론은 선대의 영향을 계승하여 이루어지며 그 안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당대의 시대적 상황이 지닌 특정 문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서 특수한 시대적 의미 역시 지니기 마련이다. 정인보의 본심감통론 역시 강화학파의 사유를 계승 발전시킨 인간 본연의 심성에 대한 담론으로서의 보편성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의

8) 김세정, 「실심과 감통의 한국양명학」, 『유학연구』 36, 2016.

9) 김윤경, 「담원 정인보의 주체적 실심론」, 『유교사상문화연구』 48, 2012.

10) 한정길은 한국 근대양명학에 대한 연구(2019)와 『양명학연론』 역해서(2020)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한다. 한정길, 「한국 근대 양명학의 시대 인식과 대응 논리」, 『동도서기의 의미지평』, 동과서, 2019 ; 정인보 저, 한정길 역해, 『양명학연론: 본심이 감통하는 따뜻한 세상』, 아카넷, 2020.

특수성도 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이 일제강점기의 유학망국론, 조선인 무주체성론, 충효군국주의 등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지닌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쓰인 정인보의 저술, 특히 『양명학연론』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핀다. 먼저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의 저술 속에서 조선학과 실심에 대한 정인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심·본심 논의가 조선 유학에 대한 비판과 변론의 성격을 지녔음을 살핀다. 다음으로 정인보의 본심론과 감통론이 지닌 의미를 『양명학연론』을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가 각각 주체성 환기,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성격을 지녔음을 살핀다. 마지막에는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의 시대적 의미를 종합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의 시대적 의미가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실심·본심, 조선 유학 비판과 변론

정인보는 이견방(李建芳, 1861~1939)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된 1910년 이후부터 조선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는 1920년 중후반에 준비기를 거쳐 1930년 초반 경에 조선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1933년 이후에 그 사상적 지향을 뚜렷이 밝힌다.¹¹⁾

정인보는 1928년 「청년」지에 게재한 「역사적 고맹과 오인의 일대사」에서 조선 병폐의 뿌리가 ‘자기의 사리만을 도모하려는 일념(一念)’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법으로 ‘본심(本心) 환기’가 필요하다는

11) 정인보의 조선학은 위당 자신의 조선학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준비기(1924~1928), 모색기(1929~1932), 완성기(1933~1950)로 구분할 수 있다. 이황직, 앞의 논문(2010), 19~32쪽 참조.

훗날 위당 조선학의 지향점이 될 사유를 드러낸다.¹²⁾ 1929년에는 이익의 『성호사설』을 교간하고 『곽우록』과 합본하여 발간하면서 ‘서문’을 짓고, 그 후 『동아일보』에 『성호사설』, 『곽우록』과 관련된 두 편의 글을 연재한다. 그는 이 세 편의 글에서 조선 후기의 주체적 역사관이 성호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평가하고, 조선 후기의 실학의 발전사로 널리 알려진 ‘유형원-이익-정약용’의 계보를 확정 짓고, 이러한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풍을 ‘독자성과 실심을 추구한 학문’으로 정리한다.¹³⁾

정인보가 ‘조선학’이란 용어와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1931년에 동아일보에 연재한 『조선고전해제(朝鮮古典解題)』에서부터이다. 이 연재에 수록된 글은 「감서(愼書)」에서 「곽우록(藹蓀錄)」에 이르는 열여덟 권의 저술에 대한 해제로서 저자들은 대부분 소론 계열의 학자들과 근기 남인계열의 학자들이다. 여기서 정인보는 조선 후기에 실심으로 실용을 구하는 조선학이 나타났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가령 이면백(李勉伯, 1767~1830)의 「감서」 해제에서, 정인보는 이면백 당시 학풍이 “구심구진(求是求真)의 본로(本路)로 전향”했고, 당시 조선 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이전 유학자들에 비해 매우 일신(一新)했다고 말하며, 「감서」는 “조선학을 연구하는 우리로서 모를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조선 후기 지리학자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팔도도(八道圖)」 해제에서는 정상기에 대해서 “실로 실심(實心)으로 실용(實用)을 구(究)한 위인”으로 평가한다. 나아가 이충익(李忠翊, 1744~1816)의 「초원

12) 「歷史的 膏肓과 吾人の 一大事」는 1928년 9~10월에 정인보가 「청년」지에 기고한 글로 민족의 병폐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고 있다. 정인보는 여기서 因循, 苟且, 虛飾, 黨派, 猜忌, 冷薄 등 뿌리뽑아야 할 여섯 가지 병폐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병폐의 뿌리는 “自己的 私利만을 圖하려는 一念”에서 비롯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本心을 喚起”하여 ‘自立’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정인보 저, 『담원 정인보전집』 2, 연세대학교 출판사, 1983, 273~284쪽 참조.

13) 이황직, 앞의 논문, 2010, 22~23쪽.

유고(椒園遺稿)』 해제에서는 “근세 조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실심을 바탕으로 한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술 경향을 이익에서 정삼기까지의 계열, 이익명에서 김만중을 거쳐 홍대용까지의 계열, 그리고 정제두에서 발원한 양명학과 등 세 계열로 구분한다.¹⁴⁾

정인보는 『조선고전해제』에서 “조선인으로서 주체성을 인식한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술 사조”¹⁵⁾로서 ‘조선학’의 내용과 성격을 제시하면서, 조선 후기 학술이 그 전에 비해 ‘실심(實心)’을 바탕으로 새롭게 전향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등장한 ‘근세 조선학’의 새로운 학문 조류로서 세 가지 계통을 거론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실심을 바탕으로 실용을 논한 조선 후기의 새로운 학문 조류를 ‘실심실학’이라고 말하는데, 학술계에서 논해지는 ‘실학’ 담론은 정인보의 ‘실심실학’ 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¹⁶⁾

1933년 이후 정인보는 안재홍과 함께 학술 운동으로서 ‘조선학운동’을 이끌어가면서 사상적으로 지향이 분명한 글들을 발표한다. 『동아일보』에 1933년에 연재한 『양명학연론』과 1935~36년에 연재한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1933년 9~12월 사이 총 66회를 연재한 『양명학연론』에서는 양명학에 대해 상론하면서 조선 주자학의 문제, 양명학의 내용과 계보, 실학의 계보 등 조선 유학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¹⁷⁾

14) 『담원 정인보전집』 2권, 3~4쪽, 11쪽, 28쪽.

15) 이황직, 앞의 논문, 2010, 26쪽.

16) 정인보의 ‘실심실학’은 강화학과 혹은 하곡학파의 사유를 계승한 것이다. 그의 ‘실심실학’과 관련한 내용은 한정길,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과 조선 후기 실학-위당 정인보의 양명학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국실학학회』 28, 한국실학학회, 2014 ; 김윤경,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2019 참조.

17) 『양명학연론』은 전집에 수록된 판본과 한정길 역해본 양자를 참고했다. 정인보 저, 『담원 정인보전집』 2, 연세대학교 출판사, 1983, 113~242쪽 ; 정인보 저, 한정길 역해, 『양명학연론: 본심이 감통하는 따뜻한 세상』, 아카넷,

『양명학연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논술의 연기(緣起)」에서, 정인보는 이 책의 저술 동기를 기술하면서 조선 유학에 대한 시각을 피력한다. 그는 문두에서 “과거 수백년간 조선의 역사”는 “실로 허(虛)와 가(假)가 만들어낸 자취임을 지적하고, 최근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줄 알지만 이들 또한 이전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의연히 도로 그 자취를 따르지 아니하는가”라며 조선 유학과 당대 지식인들의 일부 형태를 비판한다.¹⁸⁾ 여기서 정인보는 ‘실심’의 유무에 바탕하여 조선 유학에 대한 비판과 변론을 진행한다.

조선 유학과 관련하여 정인보는 조선 시기에 학문은 “오직 유학이요, 유학으로는 오직 정주(程朱)를 신봉”했는데, 그 신봉의 폐단이 정주 학설을 빌려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사영파(私營派)’와 정주 학설을 배워서 중화의 적통을 드리우고자 한 ‘존화파(尊華派)’ 두 가지로 구분됨을 지적한다. 이들은 정주 학설에 몰두하여 심성을 강론했지만 사실상 ‘실심(實心)’의 ‘참된 학문[眞學]’과는 거리가 멀었고 또 도의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자신밖에 몰랐다. 이 때문에 수백 년간 조선에 가득 찬 것은 “오직 가행(假行)이요 허학(虛學)”이었다. 수양은 원래 실심의 힘을 빌려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편협한 ‘자사념(自私念)’을 누르는 것이지만, 결국 학문이 텅 빈 까닭에 “자사념만이 세월을 만나 날로 융성”해져서 조선 시기에 파벌 싸움과 당쟁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정인보는 진단한다.¹⁹⁾

『대학』의 ‘격물치지’에 대한 주자와 양명의 해석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정인보는 주자학이 양명학에 비해 사념(私念)을 조장할 경향이 내재해 있음을 지적한다. 양명학이 마음 자체를 탐구하는 것과 달리 주자학은 마음 밖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이를 심성 공부로 삼기에 실질적

2020. 아래에서는 전자를 ‘전집본’, 후자의 역해를 ‘역해본’으로 약칭한다.

18) 전집본 113쪽, 역해본 37쪽.

19) 전집본 114쪽, 역해본 38~9쪽.

으로 마음 공부의 착수처가 없다. 이 때문에 주자학을 공부하는 이는 사실상 마음에서 멀어지고 학문적으로 문자상에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정인보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념의 싹이 자라나 자만과 배타가 이루어지게 됨을 지적한다.²⁰⁾

정인보는 조선 유학이 가행과 허학을 행했음을 지적하고 주자학 자체가 실질적인 내면의 마음 공부에서 멀어져 자사념을 조장할 경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주자학 자체를 온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분명 외적 경향성을 띤 주자학 공부에 대해 비판하지만, 조선 유학에 대한 주된 비판은 자사념으로 허학을 행한 ‘사영파’와 ‘존화파’에 있다. 나아가 그는 조선 유학이 단편적으로 주자학에 매몰되었다고 보지도 않는다. 앞서 『조선고전해제』에서 보인 것처럼, 정인보는 허학을 행한 주자학자 외에 조선 후기 유학에서는 실심으로 실용을 구한 “근세 조선학”의 새로운 실학적 학술 조류가 있었다고 본다.

정인보가 볼 때 조선 유학의 병폐는 ‘허(虛)’와 ‘가(假)’로 학문을 행한 ‘사영파’와 ‘존화파’다. ‘실’·‘진’과 ‘허’·‘가’를 대비시켜 전자의 입장에서 후자를 비판하는 것은 이충익이나 이견방 등의 하곡학과에 의해 계발된 논리로, 정인보의 시각은 이를 계승한 것이다.²¹⁾ 더불어 정인보는 ‘허’·‘가’의 병폐의 핵심을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편협한 사념[自私念]으로 보고, 이 병폐는 조선뿐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러한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실심환성(實心喚醒: 실심을 불러 깨움)’이며, 이를 논하기 위함이 바로 정인보의 『양명학연론』 저술 동기다.²²⁾

20) 전집본 122쪽, 역해본 76쪽.

21) 한정길, 앞의 논문(2014), 133~134쪽 참조.

22) 정인보는 「논술의 연기」 말미에서 “실심에 대한 환성을 화제 삼아온 지 오래다. 이것이 혹 “실심” 환성(喚醒)의 한 기회가 아닐까 하여 이 장론(長論)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집본 116쪽, 역해본 42쪽.

정인보가 제시한 ‘실심’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타고난 ‘본말마음’, 즉 ‘본심’이다.²³⁾ 자사념과 본심에 대한 사유는 「역사적 고맹과 오인의 일대사」에서 이미 단초가 나타나고, 『양명학연론』에서는 양명학에 바탕한 상세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런데 ‘자사념’과 ‘실심·본심’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한 정인보의 조선 유학 비판과 변론은 1910~20년대 일제 관학의 시각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사실상 정인보의 논의는 당시 행해진 일제의 조선 유학 비판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크다.

주지하듯 일본은 1910년대에 무단통치를 행하다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에는 문화통치로 선회한다. 무단통치기에 일본은 조선 유교가 사대주의, 당파싸움, 허례허식 등을 일삼아 망국의 원인이 되었다는 ‘유교망국론’을 주장함으로써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조선 유학의 부정성을 ‘한국적 특수성’으로 부각하여, 한국 유교에 대한 담론을 ‘한국인의 민족성’론으로 비화했다. 문화통치기에는 식민 권력의 지배 효과를 더욱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논의를 실증적인 근대적 학술 담론의 형식으로 제창했다. 문화통치기에 일본 관학자들의 조선학 연구에 하나의 전형을 제시한 이는 바로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 이하 ‘다카하시’로 약칭)다.²⁴⁾

다카하시는 1910년 조선총독부종교조사촉탁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유학 연구를 시작했고, 1926년 경성제국대학 개교와 동시에 교수로 임명된 이후에는 조선문학사와 사상사를 강의했다. 그는 이 시기에 조선 유학 및 조선인의 민족성과 관련된 많은 논저를 저술했다.²⁵⁾ 그

23) 한정길, 앞의 논문, 2014, 133~134쪽.

24) 정일균, 「일제의 식민통치와 식민주의적 근대지식의 형성-‘다카하시 도루 [高橋亨]의 조선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91, 한국사회사학회, 2011, 178~188쪽.

25) 이승률에 따르면, 다카하시의 생애는 제1기(1878~1903), 제2기(1904~1910), 제3기(1910~1925), 제4기(1926~1939), 제5기(1940~1944), 제6기(1945~1967)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1910~30년대에 한국유학 및 조선인의 민족성과 관련

는 조선이 주자학의 사회로서 천편일률적으로 주자학에 매몰되었다고 분석했다. 조선 유학은 지극히 단조롭고 평면적이며 그 사상은 고착되고 진보성이 없다며 고착성, 종속성, 비독립성, 정체성, 퇴보성 등을 조선 유학의 특징으로 제시했다. 그의 연구는 당시 지식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일본의 식민지 조선 정책에 크게 이바지했다.²⁶⁾

다카하시의 조선 사상사에 대한 담론은 「조선인(朝鮮人)」(1917) 등에서 조선인의 부정적인 민족성론으로 이어지고, 이는 이후 『조선인』(1921)이란 저술로 간행된다.²⁷⁾ 여기서 다카하시는 조선인은 어떤 사상을 수용하면 그것에만 집착하는 고착성을 지니고, 그 사상은 독창성이 없고 종속성을 지닌다며, 자신이 분석한 조선 유학의 특징을 조선인의 민족성으로 제시했다.²⁸⁾ 『조선인』의 내용은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朝鮮人の思想と性格]』에 수용되는데, 이는 “개인의 학문적 성과 차원을 넘어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또한 근대기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지식형성 과정으로 확산되어 가는 장면”을 보여준다.²⁹⁾

된 연구를 진행한 시기는 제3·4기로, 제3기는 조선총독부종교조사촉탁 임명 후부터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임명되기 전, 제4기는 경성제국대학 교수 재직 시기이다. 다카하시의 생애와 관련하여 이승률, 「日帝時期 ‘韓國儒學思想史’ 著述史에 관한 一考察」, 『동양철학연구』 37, 동양철학연구회, 2004 참조.

26) 다카하시의 조선 유학 연구에 대한 분석은 이승률, 앞의 논문(2004), 54~64쪽, 정일균, 앞의 논문(2011), 180~206쪽 참조.

27) 다카하시 도루 씀, 구인모 번역·해제,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28) 『조선인』 분석은 구인모, 「조선연구의 발산과 수렴의 교차점으로서 민족성 연구-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朝鮮人』과 조선연구」,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참조.

29) 구인모, 앞의 논문(2010), 107쪽. 참고로 『朝鮮人の思想と性格』 역서로는 조선총독부 지음, 김문학 옮김,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분석한)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 북타임, 2010 참조.

정인보는 이상과 같이 다카하시로 대표되는 일제 관학의 조선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지닌다. 일례로 정인보는 문일평에게 보낸 서간문에서 “최근 일본 학자가 왕왕 자기가 조선사가임네 하기를 좋아하여, 내외의 옛 역사를 증명하는데 한결같이 문헌에 의존한다고 과시하오. 이는 문헌에 의존하여 부회하면 이 땅의 백성이 가장 열등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알기 때문이오.”³⁰⁾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본 학자는 다카하시로 추정되는데, 이 내용은 문헌학에 바탕한 근대 학술적 글쓰기를 통해 조선인의 열등성을 논한 일제 관학에 대해 정인보가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잘 보여준다.

일제 관학에서는 조선 망국의 원인으로 조선 유학을 지목하며 이를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정인보 역시 조선 유학을 비판하지만, 핵심 대상은 ‘자사념’을 가지고 ‘허’와 ‘가’로 학문을 행한 ‘사영파’와 ‘존화파’다. 또 정인보에 따르면 조선 유학은 고착성, 종속성, 정체성을 띠면서 주자학에 매몰된 학문이 아니다. 조선 후기 유학의 경우 실심·본심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인보의 논의는 ‘실심·본심’ 유무의 여부를 통해 조선 유학에 대한 비판과 변론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식민지배 정당성을 위해 이루어진 일본 관학의 조선학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대응의 논리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3. 본심론을 통한 주체성 환기

실심·본심 없이 자사념으로 허학을 행하는 이들에 대한 정인보의 비판은 조선 유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학자들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이들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본래의 내적 주체성을 잃

30) 정양완 옮김, 『담원문록 중』, 태학사, 2006, 139쪽.

은 체 학문을 한다는 점이다. 정인보는 양명 심학(心學)을 바탕으로 본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개개인에게 내적 주체성을 불러일으킬 것을 주문한다.

정인보는 당대 지식인들이 겉으로는 화합과 단결을 말하지만 사실상 파벌 싸움은 더 격화되고, 학문 역시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만 힘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서구 학설만을 위대한 학문으로 여기고 수용하여 꼼꼼함과 똑똑함은 발전했지만, 누구도 ‘실심’은 돌아보지 않는다. ‘실심의 시비분별’ 없이 단지 ‘타인의 학설[他說]’에만 의지한다면 밖으로만 떠돌게 되어, 마음 안에 “자사념(自私念)이 쉽사리 들어서 있게” 되어 타인의 학설은 결국 “자사념에 대한 이용물”로 변하게 된다.³¹⁾ 학문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홀로 아는 곳’, 즉 실심에 따라야 한다. 자신만이 ‘홀로 아는 곳’이 허(虛)와 가(假)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으로서, 여기에서 삼감이 곧 “실학의 핵심”이다.³²⁾

타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마음[實心], “홀로 아는 곳”에 의해 학문을 행함은 자기 주체적인 마음으로 학문을 행함이다. 주체성 없이 타자에 의존하여 학문을 행하는 이들에게 내면의 ‘진실한 마음을 불러 깨우기[實心喚醒]’ 위함이 바로 『양명학연론』의 저술 계기다.

정인보는 자신의 주체적 마음을 자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양명의 심학을 논한다. 다만 심학을 논하기 앞서 정인보는 양명의 ‘심학’이 근대 학술 용어로서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고찰하는” 학문이 아님을 지적한다. 심학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타고난 그 본모습, 즉 본밀 그대로 조금의 속임도 없이 살아가려는 공부”다. 여기서 ‘마음의 본밀’이란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있음을 보면 곧바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그 판단을 내리는 그곳”, 즉 ‘본심’으로

31) 전집본 116쪽, 역해본 42쪽.

32) 전집본 158쪽, 역해본 222쪽.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일 수 없”는 곳이다.³³⁾

양명의 심학은 마음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가 아닌, 우리의 본래적인 마음 즉 ‘본심’대로 살아가기 위함을 말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정인보가 말하는 본심은 바로 실심이다. 거짓이 없는 우리 자신의 진실한 마음[實心], 즉 마음의 밑바탕으로서 본심, 이 마음을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 『양명학연론』에서 강조하고자 한 핵심이다. ‘본심 환기’는 「역사적 고맹과 오인의 일대사」에서 ‘자기의 사리만을 도모하려는 일념’에 대한 처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으로서 ‘실심 환성’과 동일한 내포를 지닌다.³⁴⁾ 정인보는 양명 심학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해 더욱 상세히 논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일 뿐이다.

정인보가 본심론을 논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룬 양명학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치양지(致良知)’설이다. 정인보에 따르면, ‘치양지’의 ‘치’는 ‘이룬다’는 뜻으로서 “한도를 다한 것”, ‘양지’는 “천생으로 가진 앎” 즉 주체가 타고나면서 지닌 선천적인 앎이라는 뜻이다. 양지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앎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저버리거나 가리고 심하면 분탕하여 없어지도록 하기도 하기에 이 ‘앎’을 ‘앎’답게 이루어 놓자는 것이 양명의 ‘치양지’이다.³⁵⁾ 여기서 정인보

33) 전집본 123~125쪽. 역해본 84쪽, 88~89쪽.

34) 정인보는 『양명학연론』에서 실심이 본심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심’과 ‘본심’이 『양명학연론』에서 사용되는 맥락을 볼 때, 두 용어는 진실한 본래의 마음을 지칭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한정길, 김윤경, 김세정 등 정인보의 양명학을 다룬 선행연구 역시 모두 실심을 본심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실심’은 주로 허학과 가학을 행하는 마음에 대비되는 진실한 마음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며, ‘본심’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마음(본말마음), 즉 마음의 본체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35) 더불어 정인보는 양명학이 간단하고 쉬우며 단순 명쾌하여, “양지의 한 점 곧은 피[一點直血]”로써 그의 소멸하여 없어지게 된 “마음의 혼[心魂]”을 불러 회복하자는 것임을 지적한다. 전집본 116~117쪽, 역해본 57~58쪽.

는 양명이 “양지는 곧 마음의 본체다”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양지’가 바로 ‘본심’임을 지적한다.³⁶⁾

양명학 수양론의 핵심인 ‘치양지’는 본심인 ‘양지’를 회복하여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본심을 불러일으켜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본심 환기’와 동일한 의미다. 양명학은 자신의 본심을 불러일으켜 그대로 행하는 공부로서, 바로 ‘자기 마음[自心]’으로부터 비롯하기에 직접적이고 간이하다.³⁷⁾ 자신의 본심은 순일하게 참되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다.” 정인보는 이를 “일진무가(一眞無假)”로 표현하면서, 이를 “양명학의 근본[本]”이라고 본다.³⁸⁾

정인보에 따르면 ‘양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있음을 보면 곧바로 옳지 않다고 여기는 그 판단을 내리는 그곳”으로서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속일 수 없는” 본심이다. 즉 양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우리 본연의 주체성을 가리킨다. 이 양지는 일체의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도덕 판단의 주체이기도 하다.³⁹⁾ 따라서 양지로서 본심은 스스로 행위의 판단을 내리는 우리 본연의 주체성이자 시비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주체이고, ‘실심 환성’, ‘본심 환기’, ‘치양지’는

36) 더불어 정인보는 “남 모르고 나 홀로 아는 이 한 곳”이 의리와 이익, 선과 악이 나뉘는 경계로서 “여기서 소스라쳐警發함이 있으면 곧眞生活이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전집본 125쪽, 역해본 90쪽.

37) 정인보는 당시 지식인들이 자기 내면의 주체적인 본래 마음, ‘자기 마음[自心]’에서 벗어나 언어문자를 종합하거나 지식을 분석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비판한다. 전집본 131~132쪽, 역해본 118~119쪽.

38) 전집본 132쪽, 역해본 119쪽.

39) 진래에 따르면, 양명학의 ‘양지’는 “사람이 환경·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도덕 의식과 도덕 감정”으로 “주체가 본래 가진 내재적 특징”을 지칭한다. 더불어 “사람에게 내재된 도덕 판단의 능력이자 도덕 판단의 체계”로서 윤리학의 ‘양심’에 해당한다. 陳來 지음, 전병욱 옮김, 『양명철학』, 예문서원, 2004, 288~230쪽.

자신 내면에 선천적으로 지닌 도덕 주체인 본심을 불러일으켜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⁰⁾

더불어 정인보가 양명학의 근본이라고 한 ‘일진무가’는 나 홀로 아는 마음자리에서 거짓 없이 진실한 본래 마음으로 행함을 지칭한다. ‘일진무가’에는 주체성 없이 남의 의견에 끌려가는 것뿐 아니라, 외부의 사물을 바라는 욕망으로 내면의 주체인 실심, 본심을 따르지 않는 것 역시 포함된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적인 마음을 본래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통 유학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정인보가 제시하는 공부란 실심이자 본심인 “도덕 주체를 확립하는 공부”라고도 할 수 있다.⁴¹⁾

정인보는 이처럼 양명학의 논의를 빌어 우리 내면에 시비판단의 주체인 양지, 즉 본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주장한다.⁴²⁾ 그의 본심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 논의로써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양지인 본심은 모든 사람이 내면에 지닌 것으로서, 본심환기의 대상은 자사념으로 실심과 본심을 잃어버린 이들 모두이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한정하여 보자면, 주된 비판 대상은 조선인으로서 자기 주체성을 잃고 일본과 서구학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이들이다. 이러한 본심론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은 본래 주체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지닌다. 정인보 당대에 조선의 무주체성을 논한 대표적 지식인으로는 이광수(李光洙, 1892~1950)를 들 수 있다.

40) 본심에 따라 결연히 행하는 것을 정인보는 「역사적 고맹과 오인의 일대사」에서 ‘자립(自立)’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정인보 저, 『담원 정인보전집』 2, 연세대학교 출판사, 1983, 283쪽.

41) 김윤경, 「舊園 鄭寅普의 주체적 實心論」, 『유교사상문화연구』 48, 한국유교학회, 2012, 84쪽.

42) 정인보는 이처럼 양명의 심학을 중시하면서도, 양명학이 개인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서 참된 시비를 스스로 분별하여 빈껍데기와 가식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임을 지적한다. 전집본 239쪽, 역해본, 572쪽.

앞서 일제 관학을 대표하는 다카하시는 고착성, 종속성, 비독립성, 정체성 등을 지닌 조선 유학은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망국의 이념으로 여기고, 유학을 통해 열등한 조선인을 논증하고자 했음을 살폈다. 다카하시의 시각은 이광수에게 수용되어 내면화되었다.⁴³⁾

이광수는 조선 유학을 망국의 근본 원인으로서는 버려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서구 근대 문명과 이들을 모방한 일본을 본받아야 할 보편으로 여겼다. 그는 문명이 부재한 조선인이 서구 선진국 혹은 일본처럼 되기 위한 출발점으로 신문명화된 조선인을 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일본의 문화통치 시기에 근대 주체로서의 개인을 발견했다. 그는 ‘나는 내다’라는 주체적 자의식을 자각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근대성을 형성하는 뿌리로서, 이러한 자각이 없으면 문명과 진보를 이룰 수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조선 유학으로 말미암아 조선인의 정신은 천년 이상 정지된 상태라고 여겼다.⁴⁴⁾

이광수에 따르면, 조선은 경제적, 도덕적, 정신적 파산상태에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신적 파산으로 조선 유학은 파산의 근본 원인이었다. 따라서 주체적 자각과 행위는 유학의 무정신적인 상태와 구습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실 조선 유학은 이미 개항기 때부터 시대 정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성찰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자기 비하와 부정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반면 이광수는 주체적 자기의식을 갖지 못했던 유학자들 때문에 조선이 정신적 능력을 상실했다고 여겼다. 조선 유학은 공상과 공론으로서 정신의 기능을 소모시키고 마비시킨 망국의 이념으로서 결코 민족의 자산이 될 수 없었

43) 이하 이광수에 대한 내용은 박정심의 「이광수의 근대 주체의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철학논집』 45, 한국철학사연구회, 2015, 「식민기 부정적 주체의식의 유학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양철학연구』 83, 동양철학연구회, 2015, 두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44) 박정심, 앞의 논문(『한국철학논집』 45, 2015), 129~133쪽.

다. 사대주의와 소중화 의식은 조선 유학의 무정신성과 무주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선민족은 타자에 동화되어 주체성을 상실한 파산한 주체이기에 ‘조선인은 죽었다’고 선언했다.⁴⁵⁾

조선 유학은 이광수에게 버려야 할 전근대적 유산에 지나지 않았다. 민족 재생의 길은 민족 개조를 통한 문명화로 공상과 공론이었던 유학과 단절을 통해 가능하며, 조선인의 주체적 자각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신문명을 통해서라고 주장했다.⁴⁶⁾

이광수는 서구 선진국과 그들을 모방한 일본을 수용해야 할 문명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근대 주체로서 개인을 발견하고 추구했다. 하지만 박정심의 지적처럼, 그가 추구한 조선인은 “서구 혹은 일본에 동화된 주체였다는 점에서 비주체적 주체”이다. 이처럼 “타자화된 정체성은 비주체적 정체성을 생성하고 비주체적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대한 바른 판단과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된 주체의식이라고 할 수 없다.”⁴⁷⁾

정인보의 본심론은 서구 선진국의 논의만을 중시하며 이를 수용하는 당대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이지만, 동시에 이광수처럼 주체적 자의의식으로서 주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서구 문명과 일본의 식민담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서구의 사유가 아닌 유학 자체의 사유를 통해 도덕 주체를 논한 정인보의 본심론은 조선 유학과 조선인의 무주체성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감통론에 바탕한 개방적 민족주의

정인보는 내면의 진실한 시비판단의 주체로서 본심을 불러 일깨울 것

45) 상동, 137~138쪽. 박정심, 앞의 논문(『동양철학연구』 83, 2015), 358~359쪽.

46) 박정심, 앞의 논문(『동양철학연구』 83, 2015), 359~360쪽.

47) 박정심, 앞의 논문(『한국철학논집』 45, 2015), 149쪽.

을 강조한다. 이와 동시에 본심으로 대중, 민족, 나아가 인류에까지 소통해야 한다는 감통론을 주장한다.

감통론 역시 그 단초는 일찍이 「역사적 고맹과 오인의 일대사」에 보인다. 여기서 정인보는 “내가 서자는 것이 아니라 대중으로서” 함께 서고, 자신의 본심으로 대중의 본심을 일으켜야 함을 역설한다. 본심은 자신만이 ‘홀로 아는 곳’으로, 한 민족의 성쇠 존망의 원인 역시 이목이 미치는 곳에 의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개인의 홀로 아는 가장 미밀(微密)한 자리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정인보는 본심에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不安)’을 밝은 등불로 삼아 “희로애락을 모든 조선인[全朝鮮]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역설한다.⁴⁸⁾ 직접적으로 ‘감통’이란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의 본심으로서 대중, 민중과 함께 서자는 주장은 감통론의 핵심이다. 감통론은 『양명학연론』에서 양명학을 통해 상세히 제시된다.

양명학은 주자학과 함께 유학에 속하지만 경전 해석이나 수양 방법 등에서 여러 차이를 지닌다. 그 중 하나는 「대학」 제1장⁴⁹⁾에 대한 해석 차이이다. 주희는 백성을 가르쳐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보고 제1장의 ‘친(親)’을 ‘신(新)’자로 고쳐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왕양명은 명덕을 밝히는 일과 백성을 친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라고 보고 「대학」 고본의 ‘친’이 옳다고 주장했다.⁵⁰⁾ 정인보는 양명의 설을 부연하면서 “민중을 친하는 이것은 심내(心內)의 일”임을 지적한다. 백성과 친함이 지극하지 못하면 ‘명덕(明德)’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되므로 “민중과 나와의 관계가 조그마한 간격을 용납할 수 없도록 감통(感通)”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¹⁾

48) 정인보 저, 『담원 정인보전집』 2, 연세대학교 출판사, 1983, 284쪽.

49) 「大學」, 제1장,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50) 『傳習錄』, 「徐愛錄」, 제1조. 왕양명 지음, 정인재·한정길 역주, 『傳習錄: 실천적 삶을 위한 지침』 1, 창계, 2007, 75~77쪽.

51) 더불어 정인보는 양명이 “늘 사람으로서 고유한 ‘알음’ 즉 ‘양지’를 제창한 지라, 책에만 구하지 말라, 네 ‘양지’에 구하라 하여 심외(心外) 일보를 내딛

「대학」 제1장의 ‘명덕을 밝히는 일’과 ‘백성을 친하게 여기는 일’ 양자가 마음 속 일로서 하나라는 정인보의 주장은 조선 민중의 복리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자로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에게 진실한 학문은 실심·본심을 바탕으로 조선 민중들과 감통하여 그들의 복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이 외의 것은 “실심 밖에서의 탐구”일 뿐이다. 이처럼 “우리 민중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서 우리 실심의 진상(眞相)을 볼 수 있음”⁵²⁾을 역설하는 정인보의 주장은, 내면의 본심을 살피는 ‘마음 속의 일[心內事]’을 국가 민중과 감통하는 일로 연결하여 지식인의 조선 민중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인보의 감통에 대한 논의는 ‘천지만물일체설’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진행된다.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긴다는 ‘천지만물일체설’은 양명학의 핵심 이론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인(仁)’으로, ‘인’은 타자에 감통하여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긴다.

정인보는 ‘인’을 ‘애뜻함[아뜻]’으로 표현한다. 우리의 본심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애뜻함을 지니는데, 만일 본심의 애뜻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는 ‘사의(私意)’에 의한 것이다. 그는 이 애뜻함이 드러나는 데는 “선후와 경중과 후박(厚薄)과 근소(近疏)”의 “천연(天然)의 절도”가 있음을 지적한다. 분명 ‘애뜻함’에는 “간격(間隔)이 없는지라” 천지만물이 한 몸이지만, ‘애뜻함’이 드러날 때는 “내 부모에 비롯하여 남의 부모에 미치고 내 친족(族類)에 비롯하여 멀리 다른 지역(遐域)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후박이 아니고는 ‘애뜻함’의 “참땀줄을 찾아낼 수 없다. 그는 “우주안의 일[宇宙內事]을 자기 안의 일[己分內事]”로 생각하려는 이들은 천지만물을 하나의 몸으로 여기는 ‘애뜻함’을 “천연한 후박으로 좇아 사모침을 깊이 생각[深念]”하라고 역설한다.⁵³⁾

지 못하게 함으로 국가 민중을 심내사(心內事)로 통감(痛感)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집본 121쪽, 역해본 74쪽.

52) 전집본 123쪽, 역해본 84쪽.

천지만물일체의 ‘인’이 선후·후박의 ‘차등애’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유학의 시각이지만 동시에 민족주의자로서 정인보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박이 없고서는 애뜻함의 참된 핏줄을 찾을 수 없다는 논리를 조선에 적용하면, 조선인이라면 마땅히 조선 민족에 감통하여 이들의 아픔을 알고 이들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선의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본심의 감통을 말하는 정인보의 시각은 민족을 향해있다. 한정길의 말처럼, 정인보가 천지만물일체설을 통해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애뜻함’에 후박이 있음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조선 민중의 복리를 도모하고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 때문”이다.⁵⁴⁾

정인보의 감통론은 양명의 ‘발본색원론(拔本塞源論)’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거론된다. 발본색원론에서 양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금수와 같은 지경에 떨어지게 하는 근원처인 유아지사(有我之私)와 물욕지폐(物欲之蔽)의 ‘뿌리를 뽑고 그 근원을 막아야 함’을 강조하며, 인간 내면에 품부된 천리로서의 양지를 밝히기만 하면 만물 일체의 대동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⁵⁵⁾

정인보에 따르면, 양명의 발본색원론은 “간단히 말하면 ‘친민’에 대한 설명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동체(同體)의 인(仁)’을 이에서 감발(感發)케 하도록 한 것”이다. 정인보는 「대학」에서 백성을 친애하는 ‘친(親)’과 자신의 명덕을 밝히는 ‘명(明)’은 하나로, 내 마음이 타고나면서 지닌 ‘밝음’을 밝히는 것과 집안, 나라, 천하에 대한 ‘애뜻함’이 둘이 아니라고 본다. 밝음과 애뜻함은 같은 것으로서, 한순간이라도 백성·사물[民物]과 나와의 일체적 감통(感通)이 없다면 이는 바로 “내 마음의 본체(本體)가

53) 전집본 130~131쪽, 역해본 111~113쪽.

54) 역해본, 한정길 해석, 114쪽.

55) 발본색원론은 『傳習錄』, 「答顧東橋書」, 제142조, 왕양명 지음, 앞의 책, 2007, 420~427쪽. 이에 대한 해설은 425~426쪽 참조.

없어짐”이다. 정인보에게 백성의 아픔과 괴로움은 곧 나의 아픔과 괴로움으로서, “감통됨에 있어 피차의 간격이 없는 것”이 바로 “본심의 체(體)”이며, 백성과의 간격을 없애는 것이 바로 ‘감통’이자 본심을 밝히는 일이 된다.⁵⁶⁾

이처럼 정인보에게 있어 본심 양지를 밝히는 일과 백성과 감통하여 친애하는 일은 하나이다. 백성과 감통하지 못하고 간격을 두는 것은 본심 양지의 발현을 막는 일로서, 본심 양지의 발현은 백성을 친애하는 감통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정인보는 끊임없이 본심의 감통을 강조한다. 감통은 “곧 천지만물 일체의 인(仁)의 원천인 동시에 ‘우주’와 ‘기분(己分: 나)’이 하나요 둘이 아닌 대원리”가 “증명되는 것”이다. 감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정인보는 심지어 양지가 바로 감통이고, 간격이 바로 사사로움(己私)이라고 역설한다.⁵⁷⁾

정인보가 『양명학연론』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실심 환기, 본심 환성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본심 양지는 민중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감통 능력을 지니며, 어떠한 ‘간격’ 없이 민중과 감통하는 데서 발현된다. 이 때문에 그는 『양명학연론』에서 내면의 본심을 불러일으켜 민중과의 감통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는 『양명학연론』을 마치는 「후기」에서도 민중의 아픔과 가려움이 곧 나의 아픔과 가려움임은 “실로 내 마음의 본체”가 그러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러한 본체는 민중과의 감통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⁵⁸⁾

『양명학연론』에서 보인 민중과의 감통 중시는 민족주의자로서 정인

56) 전집본 175~176쪽, 역해본 281~283쪽.

57) 전집본 177~178쪽, 역해본 284~285쪽.

58) 정인보는 「후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민중과의 감통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내 본심마음의 천생으로 가진 앎’을 찾으려거든,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곳을 묵성(默省)하여 보라.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그곳의 참된 체(眞體)를 찾으려거든 민중과의 감통, 간격에 있어 어느 것인가를 이를 자증(自證)하여 보라.” 전집본 238쪽, 역해본 570~571쪽.

보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감통에는 후박이 있어 내 가족에서 민족, 국가로 나아간다. 내 마음의 본체의 발현은 우리 민중, 민족과의 감통을 통해 발현되기에 타 민족이 아닌 조선 민족이 우선적으로 중시된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선후·후박에 따라 내 가족과 민족을 우선시하는 것일 뿐 이는 타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인보의 감통은 결국 천지만물로까지 나아간다. 이 점에서 그의 민족주의는 근본적으로 타자와 타민족, 나아가 전 인류에게 열려 있다.

민족주의자로서 정인보의 조선학 연구는 『양명학연론』 이후 『조선사연구』로 이어진다. 일제 강점하에서 민족주의자들은 조선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조선인의 혼, 백, 얼 등을 역설했다.⁵⁹⁾ 이 중 정인보는 ‘저는 저로서’로 표현되는 ‘얼’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의 얼’을 바탕으로 조선 역사를 서술했다. ‘얼’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참된 근거”, ‘남과 구분되는 자기 정체성’으로서의 정신’을 뜻하며, ‘조선의 얼’은 “조선민족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민족정신”을 뜻한다.⁶⁰⁾ 여기서 정인보는 몸과 얼을 대비시키는 동시에 감통론에 기초하여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겨레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역설한다.⁶¹⁾

59) 조선의 정신 혹은 정체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개념으로 신채호는 ‘아(我)’, 박은식은 ‘국혼(國魂)’, 문일평은 ‘조선심(朝鮮心)’ 등을 제창했다. 전종윤, 「리콤피르의 ‘이야기 정체성’ 이론을 통해 본 정인보의 ‘단군조선’과 ‘얼’ 사상」,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2020, 608쪽.

60) 정인보 저, 한정길 역해, 『양명학연론: 본심이 감통하는 따뜻한 세상』, 아카넷, 2020, 21~23쪽.

61) 정인보에 따르면, 사람은 7척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몸을 가졌지만 7척에 국한되지 않는 ‘얼’을 지녔다. “저는 저로서”의 그 ‘얼’은 가깝게 일민족으로부터 크게 전인류 내지 천지 만물에 이르러 일체(一體)인 것”이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슬픔과 고통으로 느끼고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다. 하지만 7척밖에 되지 않는 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편협하고 하찮게 변해버린다. 이렇게 자신을 국한하는 왜소한 테는 바로 ‘이기심[己]’, ‘욕심[欲]’, ‘사심[私]’으로, 이는 반드시 “저로서”라야 스스로 극복하고 제어[自克 自制]할 수 있다. “저는 저로서”의 그 ‘자신’이 겨레와

이러한 얼 사상은 “주체적 자아로서의 ‘얼’의 범주를 사회와 민족의 차원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으로서,⁶²⁾ “양명학의 양지론을 비롯한 유교 철학의 정수를 조선학의 실심 개념으로 종합하여 민족사와 민족 사상의 실체를 해석하는 틀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로 평가된다.⁶³⁾

정인보는 조선 민족의 부흥을 부르짖는 민족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얼 사상에 바탕을 두고 조선의 역사를 서술함으로써 조선 민족의 정신을 드러내려 했다. 하지만 감통론에 바탕한 그의 민족주의는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다. 이는 양명학을 충효군국주의에 봉사케 한 일본양명학과는 큰 차이를 지닌다.

앞서 보았듯 다카하시는 조선 유학과 조선 민족의 특성을 고착성, 종속성 등으로 특징 지우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식민지배의 정당화를 위해 다카하시가 행한 조선 유학에 대한 해석은 도쿄제국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했던 문과대학 학장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1855~1944, 이하 ‘이노우에’로 약칭)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⁶⁴⁾

일본 메이지 시기에 양명학은 정부의 지원 속에서 서구 근대화에 제동 역할을 하며 일본의 근대화과정에 일정한 공헌을 했다. 일본양명학은 신도와 합일하여 국가 정신을 근본으로 삼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이노우에다. 그는 1890년에 천황제에 기반을 둔 교육 방침을 확립한 메이지 정부의 ‘교육칙어’가 발표된 이듬해 『칙어연의(勅語衍義)』(1891)를 써서 “효제충신의 덕행을 닦고 공동애국의 의심을 배양해야 함”을 주장했다. ‘효제충신’과 ‘공동애국’을 역설하던 그는 양명학을

틈새가 없이 혼연 일체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자신은 광대해질 수 있다. 정인보 저, 『담원 정인보전집』 3, 연세대학교 출판사, 1983, 12~13쪽 ; 정인보 지음, 앞의 책(『조선사연구』, 2012), 70~72쪽.

62) 정인보 지음, 문성재 역주, 『조선사연구: 오천년간 조선의 얼』 上, 우리역사연구재단, 2012, 23쪽.

63) 이황직, 앞의 논문(2010), 31쪽.

64) 이혜경, 앞의 논문(2019), 224~225쪽.

살아있는 덕육(德育)의 도구로서 현창했다.⁶⁵⁾ 양명학은 이노우에에 의해 신도의 ‘국가적 정신’과 결합하여, 체제 비판성을 지닌 혁명적 특징은 제거되고 오로지 국가적 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일본양명학이 되었다.⁶⁶⁾

양명학은 유학의 혁명적 사상을 지니고 있기에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를 특징으로 삼는 천황제 국가인 일본에 위험성을 지닌다. 하지만 유학의 혁명성은 이노우에에 의해 중국의 특징일 뿐으로서 일본에는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양명학은 효제충신과 공동애국을 기르는 도구로서 활용되어 일본 국가주의의 맹목적인 실천력이 되었다. 이해경의 지적처럼, 사실상 이노우에에 의해 “국가주의와 결합된 양명학은 왜곡된 양명학”일 뿐이다.⁶⁷⁾

정인보의 감통론은 분명 ‘친친지애(親親之愛)’ 즉 차등애의 논리를 통해 조선 민족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감통론은 천지만물일체설을 바탕으로 하여 애뜻함을 타자에게로 확장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조선 민족만을 중시하면서 타민족에게는 배타적인 폐쇄성을 띠지 않고, 타민족과 인류에게까지 열려있는 개방성을 지닌다. 이는 타자를 식민 대상으로 삼는 제국주의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다르며, 양명학을 충효군국주의에 이용한 일본양명학의 논리와 큰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나오는 말

일제강점기에 정인보는 서구나 일본의 근대 학문이 아닌 조선 유학,

65) 이해경, 「양명학과 근대일본의 권위주의－이노우에 데츠지로와 다카세 다케지로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30, 철학사상연구소, 2008, 10쪽.

66) 상동, 19쪽.

67) 상동, 28쪽.

국학, 조선학을 깊이 탐구했다. 그가 조선의 실학과 양명학 전통에 대해 논하고, 나아가 ‘조선의 얼’을 바탕으로 조선 역사를 서술한 것은 민족 주의자로서 국권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려는 고심의 발로다. 그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나타난 학문 경향을 제시하고, 그 학문 정신의 핵심인 실심·본심을 불러일으켜 발양하는 방식으로 조선 민족의 각 개인, 나아가 민족의 본심을 일깨우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정체성인 ‘조선의 얼’을 되살려 국권회복이라는 민족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정인보는 본심의 환기와 감통을 강조했다. 본심은 실심, 양지와 동일한 내포를 지닌 용어로서 우리 마음의 본체, 본밀 마음이다. 정인보는 ‘본심의 환기’를 주창하는 동시에, 본심 양지를 밝히는 일이 민중과 ‘감통’하는 것과 하나라고 역설한다. 그는 양명학의 치양지설, 친민설, 발본색원론 등을 통해 ‘본심 감통’의 의미를 상세히 논의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인보의 시선은 항상 민중과 민족으로 향해있다는 점이다. 본심의 환기는 민중과 감통하는 일과 하나다. 이는 민족주의자로서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한정길의 말처럼,⁶⁸⁾ ‘본심감통’ 네 글자는 정인보 학문의 종지로서 ‘본심에 의한 민중과의 감통’은 바로 당시 도탄에 빠져 있던 조선의 민중을 구제하려는 강력한 구세정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은 강화양명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의 본심감통론은 유학망국론, 조선인 무주체성론, 일본의 충효군국주의 등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지닌다.

일제강점기에 조선 유학은 다카하시로 대표되는 일제 관학에 의해 조선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부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상

68) 한정길, 「한국 근대 양명학의 시대 인식과 대응 논리」, 『동도서기의 의미지평』, 동과서, 2019, 260쪽.

당수 지식인 역시 유교망국론에 동조했다. 당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인보 역시 조선 유학을 비판한다. 하지만 그는 조선 유학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비판의 대상은 ‘자사념’을 가지고 ‘허’와 ‘가’로 학문을 행한 이들이다. 조선 후기에 실심·본심을 바탕으로 한 실학의 계파가 있다는 시각은 조선 유학이 고착성, 종속성, 정체성을 지닌다는 다카하시의 주장이 잘못임을 보여준다. 정인보의 조선 유학 비판과 변론은 식민지배 정당성을 위해 이루어진 일본 관학의 논리를 타파하는 성격을 지닌다.

다카하시의 조선 유학과 조선 민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이광수로 대표되는 당대 지식인에게 수용되어 내면화되었다. 이광수에게 유학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 유산이었다. 그는 서구와 일본의 근대 문명을 수용해야 할 보편으로 여기고 근대 주체로서 개인을 발견하고 추구했다. 조선은 천 년 이상 정신이 정지된 무주체적 상태로서 조선인의 주체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신문명을 통해서였다. 정인보는 본심론을 통해 유학 자체 내에 개개인의 도덕 주체로서 양지, 즉 본심이 내재해 있음을 지적하고, 주체성을 잃고 무비판적으로 서구 문명과 일본의 식민담론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본심의 환기’를 주문했다. 그의 본심론은 조선 유학과 조선인의 무주체성을 논한 이들에 대한 비판과 대응의 성격을 지닌다.

근대 서구의 무력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동아시아는 유학 전통의 사유체계에서 탈피하여 근대 서구 문명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민족주체성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근대 동아시아 유가문화권은 공통적으로 국가주의와 도덕주의가 결합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양명학은 서구 근대 문명의 야만성에 대해 도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⁶⁹⁾ 일본의 경우, 다카하시의 스승이었던 이노우에에 의해 양명학

69) 박정심, 『한국 근대사상사』, 천년의상상, 2016, 274~278쪽; 이해경, 앞의 논문, 2008, 6쪽 참조.

은 일본 신도의 국가 정신과 결합하여, 체제 비판성을 지닌 특징은 사라지고 국가 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일본양명학이 탄생한다.

정인보 역시 양명학자이자 민족주의자로서 유가의 ‘친친지애’의 차등애 논리를 통해 조선 민족을 중시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하지만 천지만물일체설을 바탕으로 한 그의 감통론은 본심의 애뜻함[仁]을 타자에게로 확장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타자를 식민 대상으로 삼는 제국주의의 배타적 민족주의, 혹은 양명학을 이용하여 국가에 충효를 강요하는 충효군국주의와는 큰 차이를 지닌다. 감통론에 바탕한 정인보의 사유는 타자에게 배타적인 폐쇄적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가 아닌, 타자와 전 인류에게로 열려있는 개방적 민족주의로서 의미를 지닌다.

정인보는 내 안에 본말마음, 도덕 주체를 인식하여 불러일으키고 본말마음의 애뜻함을 타자에게까지 확장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는 각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성 역시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서구 근대는 개개인의 주체성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개개인의 대립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파열음을 가져왔다. 다양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공동체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덕 주체성을 지닌 개인들의 타자에 대한 공존, 공감 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 전근대 사유체계인 유학을 바탕으로 한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은 근대와 탈근대가 혼효한 현대에도 여전히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정인보 저, 『담원 정인보전집』 2·3, 연세대학교 출판사, 1983.
- 정인보 저, 한정길 역해, 『양명학연론: 본심이 감통하는 따뜻한 세상』, 아카넷, 2020.
- 정인보 지음, 문성재 역주, 『조선사연구: 오천년간 조선의 얼』 上, 우리역사연구재단, 2012.
- 정인보 지음, 정양완 옮김, 『담원문록』 중, 태학사, 2006.
- 구인모, 「조선연구의 발산과 수렴의 교차점으로서 민족성 연구—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朝鮮人』과 조선연구」, 『한국문학연구』 3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 김세정, 「실심과 감통의 한국양명학」, 『유학연구』 36, 2016
- 김세정, 「한국근대양명학에 관한 연구 현황과 전망」, 『유학연구』 42, 2018.
- 김윤경, 「근대 전환기 實心實學의 다층적 함의」, 『양명학』 53, 한국양명학회, 2019.
- 김윤경, 「舊園 鄭寅普의 주체적 實心論」, 『유교사상문화연구』 48, 한국유교학회, 2012.
- 김인식,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조선학’ 개념의 형성 과정—최남선·정인보·문일평·김태준·신남철의 예—」, 『숭실사학』 33, 2014.
- 다카하시 도루 씀, 구인모 번역·해제,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 다카하시 도루 지음, 이형성 편역,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 : 일제 황국사관의 빛과 그림자』, 예문서원, 2001.
- 류시현, 「정인보의 조선 유교와 한국 고대사 인식—「오천년간 조선의 얼」을 중심으로」, 『공존의 인간학』 2,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19.
- 류시현, 『한국 근대 역사학의 성립과 발전』, 도서출판 선인, 2017.
- 민세안재홍선생 기념사업회 편, 『1930년대 조선학운동 심층연구』, 선인, 2015.
- 박정심, 「식민기 부정적 주체의식과 유학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양철학연구』 83, 동양철학연구회, 2015.
- 박정심, 「이광수의 근대 주체의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철학논집』 45, 한

국철학사연구회, 2015.

박정심, 『한국근대사상사』, 천년의 상상, 2016.

왕양명 지음, 정인재·한정길 역주, 『傳習錄: 실천적 삶을 위한 지침』 1, 청계, 2007.

엄연석, 양일모, 강중기, 이원석, 한정길 저, 『동도서기의 의미지평』, 동과서, 2019.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식민지 조선의 근대학문과 조선학연구』, 선인, 2015.

이승률, 「日帝時期 ‘韓國儒學思想史’ 著述史에 관한 一考察」, 『동양철학연구』 37, 동양철학연구회, 2004

이혜경, 「양명학과 근대일본의 권위주의-이노우에 테츠지로와 다카세 다케지로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30, 철학사상연구소, 2008.

이혜경, 「식민지근대에 복권된 양명학-정인보의 양명학연론은 다카하시의 조선유학사에 대한 대항인가?」, 『인문논총』 76(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이황직, 「위당 조선학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4(4), 2010.

전종윤, 「리콤피르의 ‘이야기 정체성’ 이론을 통해 본 정인보의 ‘단군조선’과 ‘얼’ 사상」,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2020.

정일균, 「일제의 식민통치와 식민주의적 근대지식의 형성-‘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91, 한국사회사학회, 2011.

陳來 지음, 전병욱 옮김, 『양명철학』, 예문서원, 2004.

한정길,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과 조선 후기 실학-위당 정인보의 양명학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28, 한국실학학회, 2014.

【ABSTRACT】

The meaning of the times in the theory of Genuine
Mind and Emotional Interaction of Widang
Joseon-Hak (Korean Studies)

Lee, Dae-seung

This article explored the meaning of the times in Widang Jeong In-bo's the theory of Genuine Mind (本心) and Emotional Interaction (感通) in a special situation called Japanese colonial er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Japanese colonial era,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regarded Joseon-Confucianism as fixed, dependent, and identity, and dismissed it as the cause of the Joseon Dynasty's collapse. Jeong In-bo's criticism and defense of Joseon-Confucianism based on the theory of Genuine Mind have the character of breaking the logic of Japanese government administration made for the legitimacy of colonial rule. The negative view of the Japanese government study of Joseon-Confucianism and the Korean people was accepted and internalized by intellectuals of the Joseon Dynasty. Jeong In-bo's theory of Genuine Mind has the nature of criticism and response to those who discussed the lack of subjectivity of Jason Confucianism and Korean people. Jeong In-bo's thinking based on the theory of Emotional Interaction has the nature of open nationalism that is open to others and all mankind. His thinking have the nature of

responding to imperialism's exclusive nationalism that colonizes the other, or loyalty-militarism that forces loyalty to the state using Yang-ming studies.

【Key words】

Jeong In-bo, Joseon-Hak (Korean Studies), Yang-ming studies, Genuine Mind (本心), Emotional Interaction (感通)

